

창조 신앙은 과학에 의해 지지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본 소고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수료

논문초록

기독교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창조과학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내러티브인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속사적 구조를 따른 논의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우선 인식론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창조과학이 과학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과학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였을 때에도 지지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론과 인간의 인식론의 변동을 함의한다. 현세에 이루어지는 과학적 작업의 외삽이 창세(과거) 및 내세(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현세와 인간이 타락과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내세가 새로운 창조 혹은 창조 세계의 완성으로서 제시된다면, 현세를 기점으로 창세와 내세에 대한 일종의 대칭 구조가 성립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오병이어 사건과 내세론 기사 등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고려해볼 때, 창조 신앙은 과학에 의해 지지 받아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 과학에 의해 지지받지 않는 종말-내세 신앙이 가능하다면, 과학에 의해 지지받지 않는 창조-창세 신앙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창조론, 창조 신앙, 창조과학, 과학철학, 기독교 세계관

I. 서론

신화(myth)를 사유체계의 중심으로 두는 원시인과 과학을 사유체계의 중심으로 두는 현대인의 대비는 세속화된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고히 자리잡은 사고의 틀이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위 ‘세계에 대한 가장 나은 설명’으로서의 과학에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원시인들의 신화와도 같이 비합리적인 사고의 체계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종교와 과학 사이의 대립 모델은 찰스 다윈(Darwin)의 진화론 이후로 본격적으로 패러다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생하여 인간 실존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온 삶의 양식(form)이므로, 현대 세계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무엇이다. 이처럼 세계와 ‘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견고한 관점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계속된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

다. 특히 창세기 1-2장의 해석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예컨대 과학적 연대측정법이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년으로 추정하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을 오늘날의 24시간과 같은 길이의 시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 발생하며, 성경은 과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품게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해결 방향을 떠올릴 수 있다. 우선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지양하는 방향이다. 간격 이론이나 날-시대 이론등을 도입하여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 아니라고 보거나, 창세기 1장은 문학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방향은 소위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이라고 불리는 기획이다. 창조과학에서는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들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과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창조과학 프로젝트는 경건한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면 존중받을 만하다. 하지만 창조과학의 주장은 현대 과학의 주류 이론인 진화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속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창조과학 진영은 교과서 개정 운동 등 대중적인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류 과학계에서 큰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곤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창조과학이 창조 신앙을 과학화하기 위한 가장 열성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되,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를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돌아보고자 한다.¹⁾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와 과학 간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기독교 세계관의 내러티브인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속사적 구조를 따른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기반한 대안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논의 전개를 위하여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창조론’(creationism)이라는 용어가 기존 논의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용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포괄적인 신앙 원리부터 창조과학 프로젝트까지를 아우르는 모호한 의미를 띄고 있는 형편이다(cf. McGrath, 2010/2012, pp. 120-131). 본고에서는 ‘창조론’의 의미를 세분화하여 담아낼 수 있는 ‘창조 신앙’과 ‘창조과학’이라는 두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포괄적인 의미하되(행 14:15), ‘창조과학’은 창조 신앙이 과학에 의해 지지받아야 한다고 보고 소위 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작업들을 통해 창조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기획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할 것이다.

1) 이 때 창조과학에 대하여는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장을 대부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창조과학의 맹점

1.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에 비추어 본 창조과학

과학철학에서 구획(demarcation) 문제는 어떤 것이 과학이고 또 어떤 것이 과학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에 천착한다. 창조과학이 과학인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창조과학이 어떠한 인식론적 입장에서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창조과학이 어떠한 방법론적 맹점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창조과학은 창조 신앙 혹은 정확무오한 절대적 진리로서의 성경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실재론(realism)에 가까운 인식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과학적 사실은 일종의 가치중립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는 또다른 절대적 진리인 창조과학의 핵심 주장들과 정합적이어야 할 필연적 요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철학은 그러한 고전적 실재론의 패러다임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반실재론(anti-realism) 역시 극복하며 온건한 실재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퍼트남(Hilary Putnam; 1981)의 인식론적 전회는 이러한 변증법적인 과정을 잘 보여준다. 퍼트남에 따르면,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mind)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세계가 존재하면서도, 그에 대응될 뿐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형이상학적 실재론(metaphysical realism)이다. 그러나 이는 과도하게 단순한 관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세계가 그저 인간의 인식 작용의 산물(product)일 뿐이라는 반실재론적 관점 또한 인식론적 아나키즘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가 인간의 마음 외부에 존재하고, 인간의 인식 작용이 세계에 대한 진상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는 실재론적 관점만이 과학의 성공을 기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철학이다(Putnam, 1973). 이처럼 현대 과학철학의 주류에 해당하는 온건한 실재론에서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입증된’(verified) 절대적 진리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과학적 관찰과 탐구 또한 이론에 적재된(theory-laden) 것으로서, 토마스 쿤이 말하였듯 당대의 정상 과학(normal science) 혹은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절대적 진리 체계의 일부분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창조과학의 기초는 과학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과학의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특정한 자연 현상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일이다. 모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수리적인 관계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과학적 모델의 두 요소는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다.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의 변량(variance) 중 모델이 설명해내는 변량의 비율, 곧 설명력(explanatory power)에 의하여 평가된다. 모델의 복잡도가 동등하다고 할 때, 모델이 설명해내는 데이터 내 변량의 비율일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나은 설명력을 지닌 모델을 찾은 후에는, 새로운 관측이

발생하였을 때 독립변인으로부터 종속변인의 값을 수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서 설명과 예측이 과연 같은 것인지의 문제는 쉽지 않다. 설명이 예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모델이 미래의 관측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외삽(extrapolation)에 대한 믿음이 요구된다. 이는 귀납 추론의 한계를 여전히 지닌 것이어서, 독립변인으로부터의 예측은 언제든지 실제 종속변인의 값과 달라질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서 양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통제된 실험 설계와 많은 수의 관측을 기반으로 한 모델은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일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에서 재현가능성(reproducibility)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여기서, 창조과학 프로젝트에 이러한 과학적 모델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창조과학에 일종의 모델이 있다면 천지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사(특히 1장)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물리적 우주와 지구는 무로부터(ex nihilo) 오늘날과 같은 길이의 24시간 × 6일 동안 창조되었다.
- (2) 천지창조 때 모든 식물은 3일차에, 모든 조류와 수생 동물은 5일차에, 육지 동물과 인간은 6일차에 창조되었다.
- (3) 모든 생물들은 ‘종류대로’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종 분화라는 진화론적 모델과는 상반된다.)
- (4) 지구상에 있는 대규모의 지질학적 흔적들(그랜드 캐니언, 지층, 화석 등) 노아의 대홍수라는 단일 격변에 의하여 생성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 (5) 지구의 나이는 성경의 족보 기록에 따라 6천년 - 1만년이다.

모델에 의한 설명과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창조과학의 모델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 곧 관측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창조과학의 모델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될 뿐 오늘날 재현 가능한 물질 현상에 대한 예측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창조과학 진영에서 과학이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과 기원과학(origin science) 또는 역사과학(history science)으로 나뉘며 창조과학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곧, 창조과학에서는 실험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모델을 수정해나가는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다. 첫째는 칼 포퍼(Popper, 1962)의 반증주의(falsificationism) 관점에서 창조과학이 과연 과학인가 하는 점이다. 반증주의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언명이 과학(적)인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그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것이 반증(falsify)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창조과학 프로젝트는 어떠한 예측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결코 반증될 수 없는 것이며, 반증되어서도 안 된다. 세계가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떠한 예측을 내놓지 않고, 그에 반하는 증거는 결코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천지 창조 이야기와 반대되는 듯한 소위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창조과학 진영에서

는 그러한 증거들로 인하여 창조과학의 주장이 반증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과학 프로젝트는 반증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이 아니다.

둘째는 왜 창조과학의 모델이 예측이 아닌 설명만을 제공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창조과학이 기반하는 전통적인 창조 신앙이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떠한 입자적인 메커니즘(mechanism)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는 성경의 천지창조 기사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무에서부터(ex nihilo) 유로의 창조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된다. 천지창조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말씀은 모든 생물종이 성체의 형태로서 한순간에 출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속한 신비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 현상에 대한 인과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거나 예측을 내어놓지는 않는다.

더하여 과학은 관찰할 수 없는 것, 정의할 수 없는 것, 세계의 토대가 되는 법칙들(laws)의 원인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고, 또 말하지 않는다.²⁾ 창조 신앙이 '과학'이라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 것인가?

2. 성경에 비추어 본 창조과학

창조과학 프로젝트의 언명들은 소위 성경적인 것, 곧 성경 구절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창조과학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세속적인 접근이 아닌 성경에 기반한 접근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조과학 진영이든 혹은 이를 비판하는 소위 지성적인 진영이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창조과학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온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창조과학 진영에서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에 따라 주류 과학계의 진화론적 견해가 틀렸다고 단언한다. 반대로 소위 지성적인 진영에서는 주류 과학계의 견해가 틀렸다고보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온 면이 크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창조과학이 그 타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간명한 예로서, 창조과학의 단일격변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부정된다. 창조과학의 핵심 이론 중 하나는 노아의 대홍수라는 단일격변이 오늘날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를 사실상 전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Dott, 1982). 이 관점에서 대홍수는 지층, 화석, 그랜드 캐니언 등을 설명함에 있어 진화론적 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이다.³⁾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노아의 대홍수와는 다른 또 하나의 격변이 등장한다.

2) 예컨대 과학은 열역학 법칙들이나 광속 불변의 법칙 등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근원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3) <http://creation.kr/EvidenceofFlood> (2021. 05. 03. 확인)

창세기 1장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위 본문을 문자적으로 읽어 보자. 하나님은 지구에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신다. 이는 혼돈하고 공허하던 땅이 물과 뒤섞여 있었던 상태에서(창 1:2) 물은 물끼리, 나머지 물질들은 나머지 물질들끼리 모이게 된 사건이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아마도 입자간 인력에 의해)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 뭉치게 되었다. 지구의 표면과 내부를 막론하고 뒤섞여 있던 모든 물질들이 일제히 이동하여 정렬한 것이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격변이 24시간으로서의 하루 안에 이루어졌다. 이는 물이 지표를 덮었다가 다시 물러간 노아의 대홍수보다도 더 빠르고 큰 격변이었다. 이처럼 성경에 적어도 2번의 대격변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조과학의 핵심 이론인 단일격변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창조과학에서와 같은 창조 이해로 귀결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경에 대하여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한 신학자들 또한 창조과학 진영에서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피력해온 경우가 많다. 20세기 초반 미국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앞에서 성경의 영감성을 변호하였던 벤자민 워필드(Warfield)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워필드는 ‘칼빈의 창조 교리’(Calvin’s Doctrine of the Creation)에 대한 논문에서 칼빈의 창조 이해상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ex nihilo)는 세계로서의 우주의 창조와 인간 영혼의 창조라는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생물체들의 경우 땅이라는 물질들의 덩어리로부터 이차적인 원인에 의해 분리되어 나온 것이었음을 정리한 바 있다(Warfield, 1915). 곧, 워필드는 성경무오론자이면서 동시에 진화론자였다고 할 수 있다(Livingstone & Noll, 2000). 칼빈과 워필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세속적인 사상과 타협하였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칼빈은 찰스 다윈(Darwin)이 진화론을 제시하기 수백 년 전의 인물이다. 차라리, 성경에 대한 보수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이 생물체들의 독립적이고 순간적인 출현이라는 이해로 반드시 귀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더 쉽다.

본 장에서는 창조과학이 과학철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음을 간략히 논하였다. 창조과학이 창조 신앙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가장 오랜 시간동안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인 프로젝트라고 할 때, 그러한 시도는 결국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창조 신앙과 과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Ⅲ. 세계의 존재론적 변동과 인간 인식론의 변동: 기독교 세계관의 역동성

기독교(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거칠게 말하자면 세계관의 전쟁(war of the worldviews)이라고 할 수 있다(Chopra & Mlodinow, 2011). 그러나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독교 세계관만이 여타의 과학적 세계관과는 달리 사유와, 존재와, 생성과, 행동 사이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세계관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Bavink, 1929/2019).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무엇이 이러한 담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며,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하는 것

기독교 세계관은 거칠게 말하자면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통시적이고 역동적인 구조 하에서 구속 역사(salvation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Noll, 2011/2015; Anderson et al., 2017). 이후에 살펴볼 바와 같이,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론적 변동과 인간 인식론의 변동을 함의하고 있다. 이는 Barbour (1990)가 제안하였던 기독교 신앙(종교)와 과학 간의 관계 - (1) 갈등(conflict), (2) 독립(independence), (3) 대화(dialogue), (4) 통합(integration) - 의 공시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의 한계를(cf. Cantor & Kenny, 2001) 넘어서게 해준다.

2. 세계의 존재론적 변동

세계는 창조(천지창조 직후), 타락(아담의 범죄 이후), 구속(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완성(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이라는 구속사적 사건에 따라 창세-현세-내세의 존재론적인 변동을 겪는다. 창세와 현세를 구분짓는 사건은 아담의 범죄이며, 현세와 내세를 구분짓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구속 사역은 현세의 시점에서 창세와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cf. Noll, 2011/2015).

예컨대, 현세에는 생물학적 개체의 죽음이 당연한 일이지만,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아담의 범죄 이전 창세에는 인간은 물론 여타 피조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창 3:19; 롬 5:12; 8:19-22).⁴⁾ 내세에서 역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며(계 21:4)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종노릇을 피하게 될 것이다(롬 8:22). 또한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현세에서 내세로의 완성 이후에 물리적 세계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변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세와는 다른 창세 및 내세는 ‘영원’이라는 단어로써 제시된다. 달리 표현하

4) 물론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인간의 영적 죽음만이 성경에서 제시된다고 보는 관점도 가능할 것이다.

자면, 영원 전 그리고 영원 후의 세계는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Augustine)과 칼빈 등에 따르면 영원이란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을 의미하며, 공간 또한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 된다(Warfield, 1915). 또한 여기서, 내세는 창세 때의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세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계 21:5-6). 그러므로, 현세가 갖는 창세 및 내세에 대한 존재론적 간격은 일종의 대칭성을 지닌다. 창세 이후 타락한(fallen) 현세가 다시 회복된 세계가 내세이기 때문이다.

3. 인간 인식의 변동

알빈 플란팅가 (Plantinga, 2000)는 타락 이후 죄로 인하여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저하되어 성령의 특별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을 현대철학적인 문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임마누엘 칸트(Kant, 1781/2011)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식의 형식이 갖추어져야만 인간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가운데 분량, 성질, 관계, 양상과 관계된 선형적인 범주가 개입한다고 보았다. 이 때, 인간의 과학함 또한 이러한 인식의 형식이 갖추어졌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창세 및 내세의 시공간이 현세와의 시공간과 질적으로 다르다면, 현세의 과학은 창세 및 내세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오늘날 인간의 과학함은 타락 이후 제한되어 있는 인식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생명의 문제와 관련한 세계의 존재론적 변동에 부합하도록, 인간의 인식론 또한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각 단계마다 다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인식론은 타락 이후의 아담 및 오늘날 우리의 인식론과 현저히 다를 것이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종류대로 지었다는 성경 말씀은 아담에게도 일종의 과학함이 있었음을 드러내며(창 2:19-20), 이는 오늘날 우리의 과학함에 비하여 뛰어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마찬가지로, 현세의 우리의 인식론은 내세의 우리의 인식론과는 사뭇다르게 될 것이다. 내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요일 3:2). 예컨대, 창세 및 내세에서는 기독교(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모델들 중 통합 모델로서 가장 잘 설명되지만 현세에서는 갈등 모델이 가장 나은 설명이라는 식의 통전적 이해를 시도해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현세에는 성령의 작용으로 인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추후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특별 계시를 받은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간에 자연 계시의 영역에서도 인식론적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IV. 성경 구절 사례 고찰

한편 본 장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하여 함의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들을 2개 부분 정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이와 무관하지 않게 종말에 관하여 다루는 본문들이다.

1. 오병이어 기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이적 중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은 질량을 가진 물질이 생성되는 장면으로서(마 14:13-21; 막 6:30-44; 눅 9:16-17; 요 6:11-12),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⁵⁾

마태복음 14장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 역사상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다면, 당시에 떡과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방금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떡과 물고기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였다면, 이들은 며칠 전에 조리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적어도 몇 개월 전에 발생한 생물학적 개체로부터 유래하였다고 분석되었을 것이다. 이는 완벽하게 타당한 과학적 작업의 결과로서 도출한 내용이 실제 발생한 일의 전말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권능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과학자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자연주의적 과정을 초월한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초월적인 창조 사건에 대한 믿음과 물질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각각의 타당성을 유지한 채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⁶⁾

한편,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야 및 엘리사 선지자 때 물질(음식)이 생성되었다는 기사 등(왕상 17:16; 왕하 4:6) 성경에서는 물질이 일련의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거친 형태로서 생성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5) 남자만 오천 명이었다고 기록된 군중은 여자를 포함하여 일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마 14:21; 막 6:44). 각 사람마다 빵(100g) 두 덩이와 물고기(100g) 한 마리씩 대략 300g = 0.3kg의 음식이 배분되었다고 대략 가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서 생겨난 물질은 약 3000kg이고, 이러한 물질이 생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E = mc^2$ 에 의하여 약 $2.7 \times 10^{20} J$ 에 해당한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에너지가 약 63경 $J (= 6.3 \times 10^{17} J)$ 이었다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서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500여개의 에너지에 상응하는 물질이 생성된 것이다.

6) 김익환 (2019)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부터 순간적으로 변화시킨 포도주가(요 2:7-10) 약 100년 묵은 것처럼 뛰어난 품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논의를 전개한다(pp. 96-105). 다만 김익환이 예시로 든 포도주 사건은 물질의 생성이기도 하지만 변화에 초점을 둔 면이 있다고 하겠다.

창조의 결과물은 오래되어 보이는 물질의 형태일 수 있다. 이는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 또한 ‘오래되어 보이는 젊은 지구’의 창조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을 비롯한 과학적 방법으로 계산한 지구 및 우주의 나이는 45억년 이상으로 오래되어 보일 수 있고, 이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지구(또는 우주)가 실제 생성된 연대는 그보다 적을 수 있다. 이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 이해가 오늘날 주류 과학계의 정상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2. 내세론 기사

베드로후서 3장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종말의 때를 연결하며, 당대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말의 교훈을 제시한다.

베드로후서 3장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베드로후서 기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리하셨듯이 내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래할 것을 말한다. 그런데 내세의 도래는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과정을 포함하는데(7절), 이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elements; KJV, NIV)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10절). 그 이후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며(13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다(계 21:1). 이처럼,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내세(오는 세상) 또는 종말은 물리적 세계의 근원적인 재구성을 포함한다. 물론 이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고전 15:44;)

필자는 여기서 내세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경우 창조 신앙에 비하여 소위 과학적 견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세 신앙은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도,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성격의 사건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내세 또는 종말을 믿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는다. 현세와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내세에 대하여 현세에 처한 인간의 인식이 가닿을 수는 없으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대칭적으로 현세와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창세에 대하여 역시 현세에 처한 인간의 인식이 가닿을 수는 없으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데 문제가 없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성경의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거나,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하여도 어찌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우선 인식론과 방법론의 관점에서 창조과학이 과학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과학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이 과학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곧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 혹은 좋으나 나쁘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서, 문학은 과학이 아니지만 문학 내에서 옳은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좋은 문학을 전개하며 전유하는 일이 당연히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보지만, 창조 신앙은 과학에 의해 지지받지 않아도 옳은 주장을 할 수 있고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창조과학을 부정함으로써 주류 과학계의 견해인 진화론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창조 신앙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만 의존하여 견고히 설 수 있다고 본다. 창조과학이나 진화론을 막론하고 무언가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거나 성경 말씀과 양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함이 본고의 취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 진영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단일격변설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따른다.

한편 본고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내러티브 구조인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관점에서 기독교와 과학 간의 관계를 정립해나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론과 인간의 인식론의 변동을 함의한다. 현세에 이루어지는 과학적 작업의 외삽이 창세(과거) 및 내세(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현세와 인간이 타락과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내세가 새로운 창조 혹은 창조 세계의 완성으로서 제시된다면, 현세를 기점으로 창세와 내세에 대한 일종의 대칭 구조가 성립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오병이어 사건과 내세론 기사 등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고려해볼 때, 창조 신앙은 과학에 의해 지지 받아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 과학에 의해 지지받지 않는 종말-내세 신앙이 가능하다면, 과학에 의해 지지받지 않는 창조-창세 신앙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학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과학이 창세와 내세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낼 수 없다면, 현세에서 과학함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과학함이 오늘날 현세에도 여전히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word, logos)이신 예수 그리스도를(히 1:3) 자연 계시를 통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의 과학함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게 된다. “천지의 법칙”(fixed laws; NIV)이 견고할수록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렘 34:23-26). 실상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알아가고자 하는 신학도 한계가 있을진대, 과학에 한계가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적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지적인 활동은, 현세의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시 19:1).

참고문헌

김익환 (2019). **진화론과 창세기의 하모니**. 서울: 창하

Anderson, T. J., Clark, W. M., & Naugle, D. K. (2017).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Pursuing God's Perspective in a Pluralistic World*. IVP.

Barbour, I. G. (1990). *Religion in an Age of Science*. San Francisco: Harper & Row.

Bavink, H. (1929). Christelijke Weredbeschouwing. 김경필 (역) (2019). **기독교 세계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치유**. 군포: 다함.

Cantor, G., & Kenny, C. (2001). Barbour's fourfold way: Problems with his taxonomy of science-religion relationships. *Zygon*, 36(4), 765-781.

Chopra, D., & Mlodinow, L. (2011). *War of the Worldviews: Where Science and Spirituality Meet—and Do Not*. Harmony.

Dott, R. H. (1982). The challenge of scientific creationism. *Journal of Paleontology*, 56(2), 267-270.

Kant, I. (1781). Kritik der Reinen Vernunft. Smith, N. K. (Trans.) (2011). *Immanuel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Edinburgh: R. & R. Clark.

Livingstone, D. N., & Noll, M. A. (2000). BB Warfield (1851-1921): A biblical inerrantist as evolutionist. *Isis*, 91(2), 283-304.

McGrath, A. E. (2010). *Science and Religion: A New Introduction* (2nd ed.). 정성희, 김주현 (공역) (2012). **과학과 종교: 충돌과 조화**. 서울: 린

Noll, M. A. (2011). *Jesus Christ and the Life of the Mind*. 박규태 (역) (2015). **그리스도와 지성: 학문 연구를 위한 기독교적 토대와 방법**. 서울: IVP.

Plantinga, A. (2000). *Warranted Christian Belie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opper, K. (1962).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New York: Basic Books.

Putnam, H. (1973). *Mathematics, Matter and Method*. Phil. Papers vol. 1.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field, B. B. (1915). Calvin's doctrine of the Creation.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3(2), 190-255.